

# 경쟁·협력·갈등... 스포츠는 사회적 속성 갖춘 '자연 실험실'

세겜으로 만나:  
왜 쓰는가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행사준비위 지음

시인·소설가·평론가 72명 글

시인, 소설가, 평론가의 글을 하나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가 엮은 '세겜으로 만나 : 왜 쓰는가'는 시인 60명이 내놓은 180편의 시, 소설가 8명이 밝힌 '왜 쓰는가'에 대한 답변, 평론가 4명이 말하는 '왜 쓰는가'에 대한 답변을 섞어놓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작가회의 40주년을 맞아 행사준비위원회가 세대와 유파에 따라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를 묶은 것이다. 수록 필자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뜻밖의 시인들부터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들 등 다양한 성향의 문인들이 아우른다.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오는 14과 17일에 교보문고 배움터에서 '세겜으로 만나 : 왜 쓰는가'를 토대로 우정시 낭독회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인·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스포츠와 문명화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에릭 더닝 지음



"실제로 오늘날 스포츠는 모든 국가의 여가 활동, 미디어 활동에서 포기할 수 없는 소재가 되고 있다. 아마 축구는 과학을 제외하고 봤을 때, 거의 세계 유일의 '공통 언어'에 육박해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전지구적 의미 차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본문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스포츠는 생활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여가로 간주하고 있다.

스포츠와 연관된 학문이나 산업 등도 날로 세분화되고 발전하는 추세다. 스포츠의 경제학, 스포츠의 상업학, 스포츠와 국가, 스포츠 행정,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윤리, 스포츠와 폭력 등 일상에서 스포츠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다. 스포츠를 문명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

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의 기원, 사회학적 의미 등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현대 사회학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독일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와 그의 제자 에릭 더닝(레스터 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공동집필한 '스포츠와 문명화'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스포츠와 인간의 문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저자들은 스포츠를 "사회학적 발명품"으로 인식한다. '사회'와 '발명'이라는 단어가 상충하듯, 스포츠는 인간들이 일상에서 특정한 행위가 일정한 양상으로 규칙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사회는 인간이 서로 필요에 의해 형성해 온 의존적인 고리에 다름 아니다. 저자들은 이를 '결합대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스포츠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란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형태 혹은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쟁과 협력, 갈등과 조화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속성들을 내재하는 '자연실험실'이라는 의미다.

저자들이 시대와의 맥락 속에서 스포츠를 들여다보는 이유다. 그들은 18세기 영국 지주계급에서 행해진 여가놀이인 여우 사냥을 스포츠의 형태로 상징한다. 당시 여우 사냥은 고도로 규칙화된 사냥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지주들은 여우를 사냥하지만 먹지는 않았고 단지 승리는 사냥에서 시간을 충분히 길게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8세기 이후 지주계급과 왕권과의 힘



18세기 영국 지주계급에서 행해진 여가놀이인 여우 사냥이 스포츠의 한 형태로 여겨졌다.

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스포츠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하층계급의 문화를 상층계급의 문화로 받아들인 복싱, 도시문화와 상류문화를 합친 크리켓이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지주계급의 영향력이 끝나면서 도시 노동계급에 의해 스포츠 성격이 점차 변모되었다.

젠틀맨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한 '클럽'제도가 생겨났던 것. 관중이 능동적으로 스포츠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전의 여가 차원과는 다른 활동이 전개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기대회를 조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통일성이 확보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들이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경기'는 신체적이지 않은, 둘 이상의 선수들 간의 경쟁, 즉 체스와 같은 활동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복싱이나 운동경기와 같은 '스포츠'는 신체적 경쟁을 의미하지만 '놀이적인 경기'와는 다르다.

거기에 비해 '스포츠 경기'는 '놀이(경기)'가 이루어지는 '신체적 경쟁'을 뜻한다. 예를 들자면 야구, 축구, 럭비 등이 이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가 사회화 되고 놀이적인 경기로 발전했다는 것은 '사회화'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방증이다. 즉 스포츠는 문명화 과정 속에서 탄생된 여가와 레저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자들은 이유로 부상한 홀리건 문제도 분석한다. 축구의 홀리건 폭력은 1960년대 영국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사실은 무질서가 동반되지 않는 경기는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설명한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3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허버트 피드백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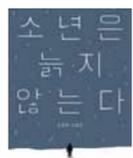
더글러스 스톤  
설라한 지음

## 피드백 효과적인 활용법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피드백을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학습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모순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드백,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허버트 법학대학 교수인 더글러스 스톤과 설라한 현이 펴낸 '허버트 피드백의 기술'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선보인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상대가 갑자기 내뱉는 수많은 의견, 요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 더불어 피드백을 솔직하고 우아하게 거절하거나 필요한 경계선을 짓는 방법도 들어 있다. <21세기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소외·단절·페인... 현대사회의 민낯



소년은 늙지 않는다

김경욱 지음

기발하다, 소설가 김경욱의 상상력은 날카롭다. 그의 상상력이 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은, 광주출신 소설가 김경욱이 소설집 '소년은 늙지 않는다'를 냈다. 그의 기발한 상상력은 소설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책에 담긴 대부분 소설 속 인물은 타인과 단절돼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스프레이는 이웃의 택배를 우연히 가지고 온 한 남자의 이야

기다. 그는 죄책감보다는 포장을 뜯어내며 쾌감을 느낀다. 처음은 실수였지만 그 쾌감 탓에 남의 택배를 훔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날 옆집 여자에게 온 택배를 가져온 남자는 내용물을 보고 기겁한다. 상자 안에는 그의 잠을 방해하던 그녀의 고양이가 죽은 채 담겨 있었다.

남자는 이 택배를 되돌려 주려다 우체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애인과 결별한 여자는 자살한다. 이 과정에 남자가 인터넷으로 과실치사, 절도, 동물보호법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은 쓴웃음을 머금게 한다.

택배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매개체가 된다. 단절된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인터넷과 택배간 소통뿐이다.

다른 소설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개의 맛'의 등장인물은 빨갱이를 고문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기를 발산하거나 장소와 사람을 귀신처럼 잘 찾아내는 초능력이 있다. 신처럼 모시는 '어르신'을 찾아 나선 과정이 소설의 열쇠다.

지독히 빨갱이를 싫어하는 이들이 초능력을 이용해 찾아낸 어르신은 정작 자신들이 욕을 했던 공공 농성 중인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나이 때문에 해고된 아파트 경비가 농성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빨갱이 새끼"라며 욕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찾고 있던 어르신이 경비였다. 육상에 내걸린 '일방적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필침막은 차라리 유머에 가깝다. <문학과학지성사·1만17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당신은 한달에 책 몇권이나 읽는가



하루 25쪽 독서습관

남낙현 지음

당신은 한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가. 아니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일에 집안일에 시간은 부족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한 각오를 해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3년동안 꾸준히 책을 읽으며 집안 분

위기와 직장문화를 함께 바꾸는 사람이 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저자 남낙현이 '하루 25쪽 독서습관'을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독서전략을 소개한다.

그가 말하는 25쪽 읽기란, 한 권의 책을 게입하듯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얇게 만들어 읽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쪼개어 여러권의 얇은 책을 만들어 읽는 것이다.

그는 지난 3년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1000권의 책을 만났다. 독서를 하며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더블 : 엔·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

홍스게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